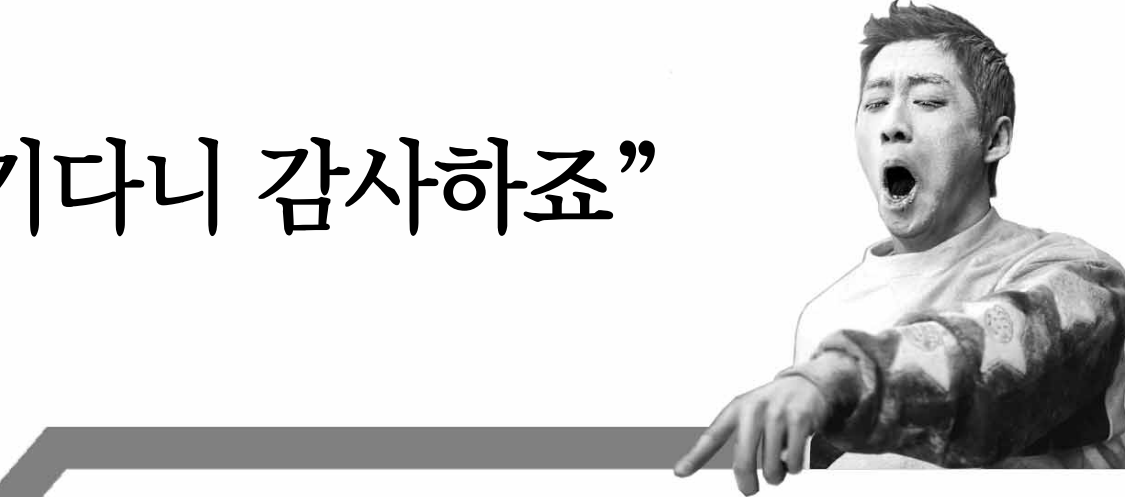


“얼굴만 봐도 웃기다니 감사하죠”

KBS ‘김과장’ 주연 남궁민
 ‘사임당’ 잡고 수목극 1위 등극
 대세 인증 5회부터 광고도 완판



“옛날에는 제가 무섭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 얼굴만 봐도 웃기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김과장’ 남궁민(39)은 이렇게 말하며 짙은 미소를 띠었다. 배우는 ‘천의 얼굴’임을 요즘 또다시 증명하고 있는 그는, KBS 2TV 수목극 ‘김과장’을 통해 시청자에게 큰 웃음을 전해주고 있는 남궁민을 만났다.

7.8%에서 출발해 지난 9일 6회에서 16.7%까지 치고 올라온 ‘김과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수확이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한류스타 이영애가 주연한 SBS TV ‘사임당 빛의 일기’와 맞붙어 4회 만에 ‘사임당’을 잡고 수목극 1위로 올라선 ‘김과장’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5회부터 광고도 완판되고 있다.

“나는 활영만 하고 있어서 인기를 잘 모르겠다. 다만,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걸로 대략 실감은 하고 있다. 더 올라가 할텐데... (웃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제 시작이지 않나. 20부 중 6부까지 방송됐으니 14부나 남아있다. 아직 멀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지금 삼패인을 터뜨리기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

그는 ‘김과장’의 선전을 자신했을까.

“물론 배우로서 어떤 작품을 하든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하는 작품인데 잘 안될 거로 생각하면서 하지 않지 않는다. 이번에도 ‘재미있게 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코믹 코드가 점점 더 강해진 것 같다. 머리에서 깎두기 국물이 흐르는 설정 등 글로 봤을 때랑 화면으로 볼 때랑 다르더라. 대본에 쓰인 것을 연기로 하려니 훨씬 더 강렬한 코믹 요소가 있더라. (웃음)”

남궁민의 코믹 연기에 대한 찬사가 많다.

“내게 코믹한 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김성룡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연구한 덕이다.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전작 ‘미녀 공심이’가

로맨틱 코미디인데, ‘김과장’도 코미디다. 두 작품 속 캐릭터 사이에 차이점을 넣어야 하고 다른 캐릭터로 웃음을 줘야 하는 것도 있다. 역할은 코믹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캐릭터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김성룡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어떻게 리액션을 할까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연기는 희극 연기라는 말이 있다. 그는 어떻게 이 과정을 극복하고 있을까.

“‘리메모’의 남궁민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한번 잡아놓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 즉각 즉각 반응을 해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김과장’은 코미디라서 즉각 즉각 반응이 안 된다. 항상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오버 연기가 살짝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서도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게 포인트다. 살짝 과장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스럽게 보이지 않게 연기를 하려나까 연기를 할 때 바빠진장을 해야 한다. 코미디를 너무 모자라게 하면 그 장면이 살지 않고, 오버를 해버리면 안 되고...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줄다리를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캐릭터를 맡느냐보다는 작품과 연출자와 작가를 보고 연기를 하고 생각을 바꿨다. 어떤 역할을 주든 연기를 하고, 어떤 역할이든 다 소화해냈을 때 거기서 오는 희열을 내 기쁨으로 삼자고 결심했다. 그러다 보니 연기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다.”

‘김과장’에서 호흡을 맞추는 조연도 막강해 작품에 힘을 보탤다.

“내 연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배우 든든하다. 드라마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니 배우들끼리 연기의 힘을 맞추는 게 중요하네, 우리는 그 시너지의 힘이 굉장히 좋다. 배우들끼리의 이러한 조화는 뒤로 가면서 서로 지치고 힘들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기대해달라.”

/연합뉴스

성매매 시도 의혹 장용준 ‘고등래퍼’ 하차 “사춘기 철없는 행동 반성”

엠넷 친필 사과문 공개...철저한 관리 약속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해 화제가 됐으나 성매매 시도 의혹에 휩싸인 장용준(18)이 결국 하차한다.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이다.

엠넷은 13일 “장용준은 본인의 어린 시절 치기 어린 행동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제작진에 조심스레 프로그램 하차 의견을 전달했다”며 “제작진은 이러한 장용준 군의 뜻을 받아들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앞으로 음악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장용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지켜보려 한다”며 “고교생의 꿈과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엠넷은 또 장용준의 친필 사과문을 함께 공개했다.

장용준은 편지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께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어떠한 말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사과하는 게 도리라 생각합니다”고 운을 폈다.

그는 “학창시절 철없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줬던 친구들과 부모님께 사과드립니다”며 “당시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며 옳지 않은 방식으로 친구들과 부모님께 잘못된 언행을 표출한 것 같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조금만만 시도 의혹과 관련해선 “일순간의 호기심으로 트위터를 통해 저급한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만남을 가져본 적은 절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그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너무 큰 잘못이었다”며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캡처본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장용준의 아버지인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전날 “국민께 죄송하다”며 당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을 사퇴했고, SNS 활동도 접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작진은 오는 17일 방송될 2회 방송부터 장용준의 출연분을 모두 편집,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위 등 프로그램 내용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엠넷 관계자는 “장용준이 하차 의사를 밝힌 만큼 더 이상 출연 분량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리운드는 멘토들과 의논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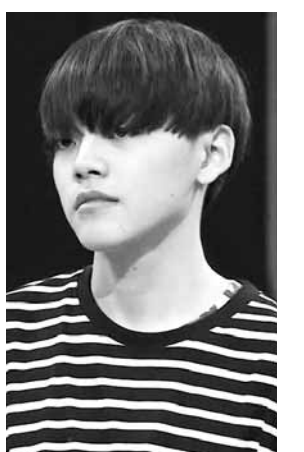
엠넷은 다른 출연자들에 대해서도 제작 인력을 일대일로 배치, 철저한 관리를 해나간다고 밝혔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장용준 외 다른 참가자에 대한 일진 전력, 강제전학 등 인성 논란 글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용준만큼 세부적인 증거를 제시한 주장은 아직 없지만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사실상 확인되면 과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져 서둘러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엠넷 측은 “아직 다른 참가자들은 논란에 대해 파악된 것은 없다”면서도 “각각의 부모님과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퓌리자 30 아침연속극 (아이들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티오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스텔라(재)	00 살림하는남자들(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꾸러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20 생생정보쇼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KBC 12뉴스 45 2017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연접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TV쇼 진품명품(재)	00 1대 100	20 문화사색(재)	
2	55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을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스괴물	00 2시, 뉴스브리핑
3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 퓌! 퓌! 퓌! 55 응가 쇼나타 2	00 영재발굴단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덕터365 15 고령전문복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퓌리자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볼 24 55 1대 100	55 MBC 특집 대선주자 검증중단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북해 위기, 기로에 선 한반도) 55 감성애니 하루 2	00 월화드라마 (화랑)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허수아비 딸들	10 PD수첩	10 2017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연접
12	30 책번개(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패러 문명여행 2부 프레 Ying, 비밀을 벗다)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지 돼지고기 두루치기)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기 햇(재) 15:35 오솔 산악2 15:45 코코콩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6:45 땀방울 유치원1~2(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크 오울 20:50 세계대마기행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다. 뉴질랜드 서던알프스, 암석의 비밀을 찾아서> 21:30 한국기행 <겨울과 산다 2부 씩개등을 아십니까?> 21:50 EBS 다크프라이드 <최후의 생존, 너구리> 22:45 리얼극장-행복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크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4일 (음 1월 18일 壬申)
	48년생 정제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60년생 맹정이 나타나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나 지나친 경계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 72년생 장소의 선정도 잘해야 하느니라. 84년생 전혀 집착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2, 60		42년생 지난날에 쌓아 온 성과가 빛을 보는 날이다. 54년생 힘을 길러야 한다. 66년생 애타계 기다릴 일이 있다. 78년생 구체적인 일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라. 90년생 오늘의 고생은 미래의 행운을 부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8, 56	
	49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결말도 좌우한다. 61년생 진행 방향은 바르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 73년생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보인다. 85년생 역운이 보이니 구걸수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34		43년생 특별히 신경 써야겠다. 55년생 학수고대에 왔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67년생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79년생 변화 가능성이 있어 두드러질 필요는 없다. 91년생 방심한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렵다. 행운의 숫자 : 63, 41	
	50년생 구태여 낭비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62년생 체면치레가 결말들이 될 수도 있느니라. 74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위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86년생 나가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터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1, 23		44년생 재물에 따르는 시달림이 상당할 것이니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56년생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68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80년생 안전하지 않다면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라. 행운의 숫자 : 30, 96	
	51년생 무심코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63년생 금전에 집착하면 더 큰 의미를 잃게 됨을 감안하라. 75년생 넉넉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낫다. 87년생 경제적인 면이 제일 우선 되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14		45년생 먼저 나서야 쉽게 풀어지느니라. 57년생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69년생 무의식중이라도 내세워버리면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음을 알라. 81년생 불집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39	
	52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64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이다. 76년생 서로 열린 마음으로 일해야 무탈하다. 88년생 진행하기보다 잠시 정지에 있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08, 83		46년생 미비한 점이 보인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보충하여 덧붙일 필요가 있겠다. 58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70년생 내버려 두면 마무리가 시원치 않게 끝날 수도 있다. 82년생 굳이 나설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8, 38	
	53년생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성과가 크다. 65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77년생 플라토 힐을 알게 되어 걱정하리라. 89년생 상호적이나 일방만을 탓할 일이 아님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4, 09		47년생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59년생 복합적 파생 효과가 크다. 71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83년생 집착을 버린다면 훨씬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0, 5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실” ☎010-9790-8237